

태극 전사들에게 하루 해는 짧다

봅슬레이·스켈레톤 장비 점검·트랙 답사

바이애슬론·모굴 대표팀 등 첫 현지 훈련



소치올림픽 D-3

2014 동계올림픽이 열릴 러시아 소치에 입성한 태극전사들은 여독을 푸는 데 집중하면서 결전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1일 저녁(현지시간) 도착한 선수단 본진 및 일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2일 소치에서 첫날을 보냈다.

인천에서 날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차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공식 훈련을 잡은 대표팀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선수는 현지 적응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할 이채원(33·경기도체육회)과 황준호(21·단국대)는 경기 장비가 이날 속초에 도착해 오전 동안에는 장

비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산악 클러스터 내에 라우라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와 선수촌을 함께 쓰는 바이애슬론 대표팀 쪽으로 짐이 모두 가면서 뒤늦게 받게 된 것이다.

오전에 장비를 손질한 선수들은 이후 러닝 등 간단한 운동을 통해 몸을 풀고 다음날 있을 훈련에 대비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 선수들은 오전에 끝맛 같은 휴식을 취한 가운데 코치진은 산기 슬라이딩 센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장비를 점검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코치진과 선수가 함께 트랙을 답사하면서 실전 분위기를 미리 느끼기도 했다. 일찌감치 현지 훈련에 나선 선수도 있었다. 바이애슬론 대표팀은 이날 오후 첫 훈련에 나서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탐금질에 들어갔다.

오는 6일부터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서정화(24·GKL), 최재우(20·한국체대) 등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대표팀도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종목에 출전하는 최재우가 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산악클러스터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병동 'KIA 캠프'

곽정철, 왼 무릎 통증 수술대 올라 박지훈, 오른쪽 팔꿈치 인대 통증 마운드 운영·시즌 구상 '안갯속'

KIA 타이거즈의 부상 악령이 마운드를 덮쳤다.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했던 투수 곽정철(사진)과 차명진이 3일 수술대에 올랐다.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한 곽정철은 이날 서울 백병원에서 연골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앞서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던 곽정철은 연골 파열 진단을 받으며 다시 또 힘든 재활길에 올랐다. 치료 및 재활 훈련에 약 10~1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마운드의 새 활력소로 기대를 모았던 신인 차명진도 우측 팔꿈치 수술로 프로 데뷔를 미루게 됐다. 이날 서울 건국대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뼈조각 제거수술을 받은 차명진은 17일에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약 1년간 재활치료 및 재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대 오르는 않았지만 박지훈도 오른쪽 팔꿈치 인대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갈 길 먼 KIA의 시즌 구상에도 안개가 드리워졌다.

KIA는 지난 시즌 초반 1위 행진을 하고도 안팎의 압박자 속에 8위로 추락을 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팀은 물론 갈린 길에 선 선동열 감독에게도 '명에 회복'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전력 약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마운드는 곳곳이 빈틈이다.

에이스 윤석민의 공백이 가장 뼈아프다. 한때 6선발 체제를 운영했던 KIA는 선발 야구로 불펜의 약점을 만회해왔지만 올 시즌은 5선발을 꾸리기도 버겁다.

선발 후보인 송은범은 지난 시즌 부진을 털어야 하고, 데니스 홀튼은 새 리그에 대한 적응력이 관건이다. 양현종·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는 캠프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외국인 소방수를 영입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뒷문을 막기는 했지만 마무리 역시 시즌이 들어가 봐야 아는 불확실한 자리다. 선발과 마무리의 불확실함을 불펜의



힘으로 만회하려고 했던 KIA에 부상이 덮치면서 계산이 복잡해지게 됐다. 특히 믿음만으로 기대를 모은 곽정철의 부상은 KIA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다.

캠프 시작과 함께 터진 부상 도미노에 KIA의 부상관리 시스템도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부상병동'은 KIA에게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다. 몇 번째 이어진 부상패턴으로 명문 구단 KIA는 학습효과 없는 부상 구단으로 추락했다. 돌아오지 않는 부상 선수와 반복되는 부상으로 '헛심'만 쓰고 있다.

곽정철과 차명진의 수술 부위는 고질적인 통증이 있던 분위다. KIA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수술 대신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정확한 부상 파악과 관리, 훈련 시스템의 점검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방지 노력 등 총체적인 변화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왕조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



시애틀, 슈퍼볼 우승

3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덴버 브롱코스와 시애틀 시호크스의 경기에서 라인백커(linebacker) 덴버 네이트 어빙(56번)이 시애틀 와이드 리시버(wide receiver) 제메인 케어스(15번)의 리시브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시애틀 시호크스가 덴버를 43-8로 꺾고 구단 창단(1976년) 후 처음으로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KBO, 대학생 객원마케터 선발

객원마케터에게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 구장 출입이 가능한 AD카드가 지급되며, 과제 및 활동 등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또 KB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날짜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 팝업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4년 제 10기 대학생 객원마케터를 모집한다.

KBO 대학생 객원마케터는 야구장 방문, 각종 프로야구 관련행사 참여를 통한 현장 실습, 미션 수행 등을 하게 되며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8명을 선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성역 광송리도로
·한약방이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